

# 시설 자동화로 금박인쇄기술 새 장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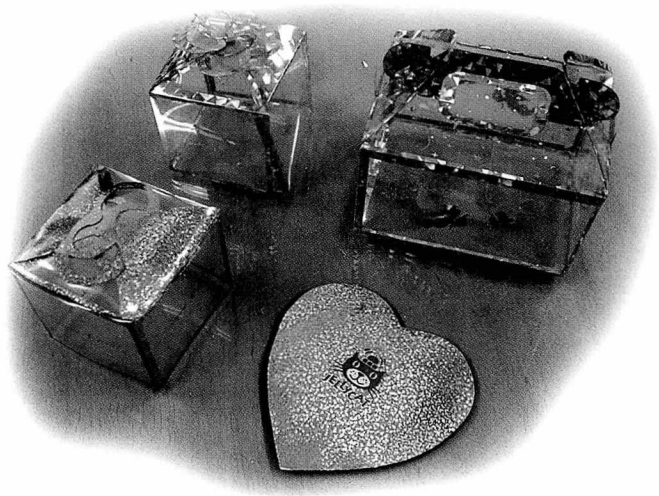
**인**쇄물 고급화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금박인쇄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주금박인쇄사(대표 손병하). 이 회사는 지난 1985년 창사이래 금박인쇄기술의 향상과 자동화에 주력해 현재 서울시 중구 쌍림동 본사와 성수동,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도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금박인쇄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 생산성은 높이고 원가는 절감

지난 1985년 창립한 상주금박인쇄사는 현재 서울시 중구 쌍림동 본사를 비롯해 성수동 제2공장과 경기도 광주 제3공장에서 12명이 일하고 있다.

상주금박에서 일하는 직원이 12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소규모 영세업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결코 상주금박이 영세하거나 소규모가 아니라 오히려 금박전문인쇄만 놓고 본다면 국내 최대 규모라 할 수도 있다.

중소제조업이 대부분 그렇듯이 금박인쇄도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박인쇄를 비롯한 특수인쇄는 돈만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술인력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소규모인 데다가 수동작업에 의한 안전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다. 그러나 상주금박은 IMF



이전부터 자동화기기를 도입, 생산성 증대는 물론 원가 절감, 근무환경 개선, 안전성 확보, 인력 절감 등으로 인해 규모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상주금박은 현재 3개 공장에 4×6전지용 자동 금박인쇄기 1대와 국전지용 2대, 반질 1대, 소형 자동 금박인쇄기 1대와 수동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밖에 관련 기기들을 보유하고 있다. 취급품목은 금박(각종 컬러박 및 먹박), 형압, 엠보싱금박, 분박, 홀로그램박 등이다.

## 기준 단가 마련해 흥보 앞장서

어떤 분야든 선도기업이 있고, 그런 기업에 의해 그 분야의 발전이 빨라지는 법이다. 금박인쇄분야에서는 상주



금박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국내 금박인쇄의 자동화에 기여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 주고 생산성 향상, 그리고 기술력 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금박인쇄의 공시단가를 공개함으로써 수발주 업체간의 갈등을 없애고,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래의 발주자에게 제대로 된 공시단가를 요구할 수 있어 잘못된 견적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금박인쇄는 독자적으로 금박인쇄에 대한 발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오프셋인쇄업체로부터 하청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오프셋인쇄업체가 금박인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견적을 낼 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것이 나중에는 금박인쇄업체에 까지 영향이 미쳐 서로 손해보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래서 상주금박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상주금박 카탈로그에 '금·은박 인쇄 단가 표'를 게재해 매년 오프셋인쇄업체에 발송을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가로 인한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는다. 다른 업체도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업계로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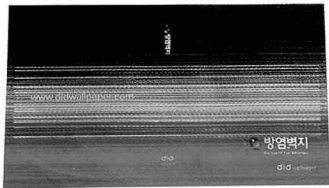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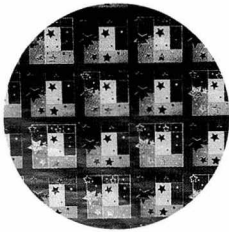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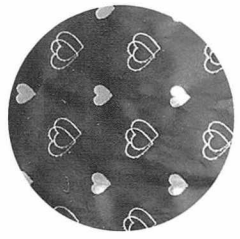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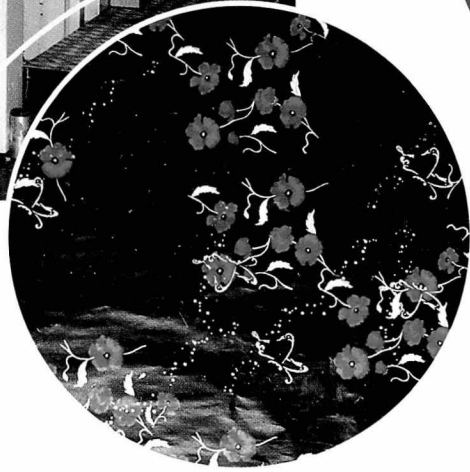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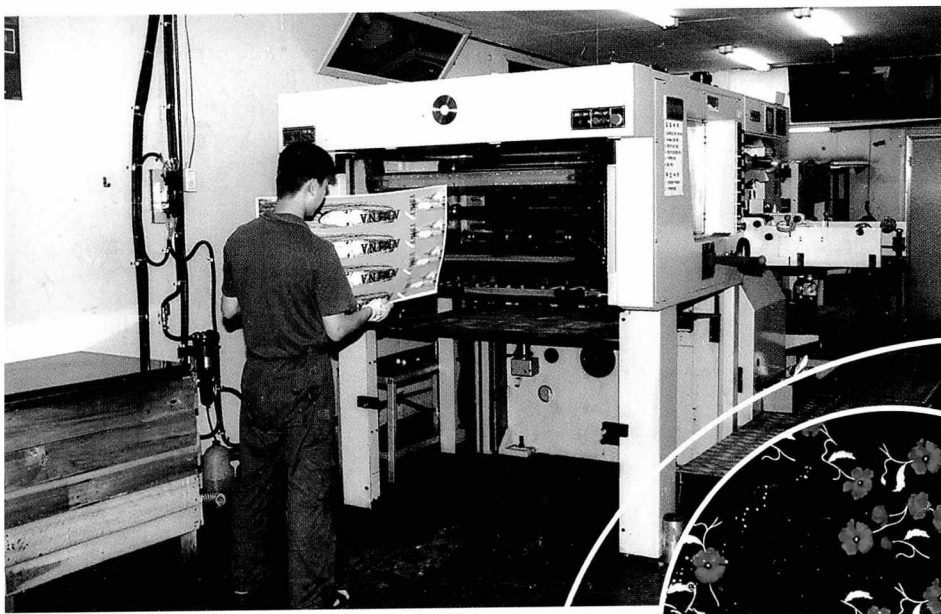
이밖에도 상주금박은 한국금은박협회와 협의해 금박인쇄를 이용한 자체상품개발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금박인쇄의 홍보는 물론 전문업체들이 모여 금박인쇄 노하우를 살린 상품개발을 한다면 자체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인쇄기술 앞세워 인쇄기 보급도

인쇄기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인쇄를 한다면 대부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상주금박은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것은 금박인쇄를 잘 아는 회사에서 검증된 기계를 공급한다는 것과 일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파악해 인쇄기메이커에 정보를 준다거나 또는 기계 구입업체에 기술지원을 해 주기 때문. 그래서 A/S의 어려움도 해결했다.

일반적으로 인쇄업체가 인쇄기를 공급한다면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상주금박은 이러한 염려를 불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쇄업체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우선 공급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고정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가를 낮출 수가 있다. 금박 자동인쇄기는 국내에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임대 및 제비용, 인건비, A/S 요원 확보 등 많은



고정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금박 자동인쇄기만을 취급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상주금박은 기존 사무실과 인원, A/S 요원도 인쇄기술자들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거기에도 그동안 쌓아온 금박 자동인쇄기에 대한 인쇄기술까지 전해주기 때문에 구입업체는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다조라 할 수 있다.

혹자는 금박 자동인쇄기의 도입이 과당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도 있지만, 금박인쇄분야도 인쇄분야 전체의 고민거리인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는 정도이며, 이 분야는 돈이 있다고 쉽게 뛰어 들 수 있는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과당경쟁과는 거리가 멀다.

### 자율성 보장으로 기업 육성

상주금박은 현재 12명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년 이상 된 직원이 4명이나 된다. 이는 곧 기술의 축적으로 이어져 금박인쇄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인쇄기 공급업체로서도 활동할 수 있는 동시에 본사 이외에 제2·3공장까지 사업확장

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상주금박은 믿음과 자율이 있는 기업이다. 사업소가 세 곳이나 있지만, 사장이 직접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함께 해 온 직원들과의 믿음이 밑바탕이 된 것이고 또한 자율적인 분위기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은 모두가 경영자 입장이 되어 솔선 수범하게 되고 이는 다시 품질과 서비스면에서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상주금박은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자율적인 경영의 표본이 되었으며, 동시에 직원들은 앞으로 자신도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상주금박이라는 회사는 사장의 개인회사가 아닌 상주금박 직원들의 공동 회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직원들이 상주금박을 경영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은 기계기술, 인쇄기술, 경영·관리에까지 관심을 갖고 일한다.

이러한 상주금박의 경영마인드가 금박인쇄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할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전문분야로서 기술을 인정받는 날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다.

# “최고 기술 인정받는 업체 이를 터”



손병하 사장

상주금박인쇄사의 손병하 사장은 동업계에 종사하고 있던 매형의 소개로 금박인쇄업계와 처음 인연을 맺게 돼 이제는 기술자로서, 경영자로서 그리고 한국금은박협회 총무로서 1인 다역을 소화해 내고 있다.

## 금박인쇄업계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 금박인쇄는 사람에 비유하자면 화장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 제품을 고급스럽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금박인쇄를 배우려는 젊은 이들이 없어서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금박인쇄 단가를 오프셋인쇄 업체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제대로 단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금박인쇄 업체들간의 정보교류도 부족하다. 그래서 인력부족 현상은 인쇄계의 자동화로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으며, 금박인쇄 단가는 한국금은박협회와 협의해 기준단가를 마련해 홍보하고 있다.

## 한국금은박협회 총무를 맡고 있는데 협회에 대한 소개를

☎ 한국금은박협회는 아직까지 크고 조직적이지는 못하지만 지난 1997년 만들어져 현재 1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 단위의 협회로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그래서 회원 상호간 정보를 교류하고 금박인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우선 일차적으로 기준 단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외 홍보활동을 좀 더 강화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금박인쇄 자체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 어려웠던 IMF 상황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 IMF 전에 자동 금박인쇄기를 들여와 환율에 따른 손해가 컸다. 그리고 경기 위축으로 기본 물량도 줄었으나 거래 업체에서 우리를 믿어주고 직원들이 더욱 더 열심히 일해 준 덕분에 감원이나 감봉 없이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소도 늘리고 자동 인쇄기도 더 도입하게 되었다.

## 인쇄업을 하면서 인쇄기도 공급하는 이유는

☎ 금박인쇄기는 수요가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수입 판매만을 하는 업체라면 고정비가 많이 들고 A/S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상주금박의 경우는 오랫동안 기계를 사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전수와 A/S, 그리고 고정비의 절감으로 공급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 등을 지니고 있어 인쇄기도 입업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회사경영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면

☎ 회사 운영은 사장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경영을 하고 있다. 상주금박에는 오래된 직원들이 많은데 이들을 중심으로 3개 사업소가 자율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들이 상주금박 경영자가 될 것이다. 금박인쇄는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일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바라고 있다.

## 금박인쇄를 해 오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 처음에는 매형의 소개로 이 업계에 첫발을 내디뎠지만 이 일을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자긍심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일은 돈이 있다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기술 집약적인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지만, 오히려 자부심까지 느끼게 된다. 전문가로서 경영자로서 만족하고 있으며 또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사육을 마련해서 사업장을 한 곳에 마련하고 싶다. 물론 지금은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따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하루빨리 사육을 마련해 금박 전문 인쇄사로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기획도 가능한 회사를 만들 예정이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준 직원들이 회사를 계속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금은박협회 운영에도 적극 나서 동종업체간의 교류 및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윤재호 부장〉